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20년 회고, 21년 전망과 한선의 진로
[발제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57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에 따라 On-tact시대가 펼쳐졌다. 21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막무가내 일방통행과 포퓰리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은 물론 권력분립을 약화시키며 절차 민주주의마저 퇴행시켰다. 적폐와 고질병도 심화되는 실정이다.

■ 2021년은 새로운 일상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ICT 혁명을 일컫는 지력 혁명과 맞물려 On-tact와 Home X는 확산될 것이다. 2022년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면 포퓰리즘 정책과 경쟁, 계급투쟁도 가열될 것이다. 경찰국가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외 여건 또한 Trumpism 종식에 따라 다자주의 복원이 시작되면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 한선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선재단은 앞으로도 Think Tank로서 실사구시의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공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힘을 쏟을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확산하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자유주의 가치를 더욱 진작시켜나갈 것이다.

◆ 2020년 회고

- ◆ 올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다.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의 일상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On-tact 시대가 펼쳐졌다. 가정과 일터, 여가를 보내는 장소가 제각각이었던 이전과 달리 대부분의 활동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Home X 시대가 개막되었다.
- ◆ 금년 21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압승 이후 정부는 지나친 일방통행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정부에 장악되었고 사법부는 정부와 여권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권력분립이 약화되었다.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근시안적 정책, 큰 정부, 종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 우리 사회의 적폐와 오랜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세습, 전제, 철권통치와 핵무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에 대응해 명분도 실속도 없는 대북 정책을 펼쳤고 성과는 초라했다. 총선을 계기로 지역과 세대, 계층, 성별 갈등이 증폭되었다. 편가르기와 각자도생이 팽배해 국민 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노조의 입김은 점점 커지고 청년실업은 악화되며 저출산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 2021년 전망

- ◆ 올해에 나타난 새로운 일상은 내년에 두 가지 흐름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일상에 면역이 되어 이제까지의 변화를 덤덤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상이 백신 등의 상용화로 인해 차츰 힘을 잃고 도태되는 흐름이다. 백신의 보편화가 관건이다. 전 인류의 60%가 백신을 맞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경

과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COVID-19 이전 삶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각 정당의 포퓰리즘, 정쟁, 계급투쟁 등이 가열될 것이다. 그에 따른 날림, 뺨질, 선심공약이 예상된다. 그 전초전으로 내년 봄에 실시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이 전국 풍향계가 될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찰국가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 ◆ 대외 여건 변화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함에 따라 Trumpism이 종식되고 전통적인 다자주의가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파리 협약, 환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TPP, 핵확산 방지 협정과 이에 저촉되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제동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다. G7, NATO 등 다자주의 체제가 복원되거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상당한 동력을 얻었던 반세계화, 반이민, 보호무역의 흐름은 지구촌 전반의 흐름이므로 미국만의 지도부 교체로 반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중 갈등은 인권,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안보 등을 매개로 더욱 가열될 것이며, 대중국 압박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 COVID-19가 촉발한 지구촌 관심사가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COVID-19가 인간의 무분별한 지구 환경파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기업은 전통적인 수익창출보다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이 부각되고 있다. COVID-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출하면서 부채를 키움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거품이 끼었다. 올해 이미 네 나라가 파산되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신흥국가와 개도국이 파산되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와 함께 선진국에서 크게 늘어난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큰 관심사이다. 항공운수 산업들을 비롯한 서비스, 관광산업에서 고용 절벽이 발생했다. COVID-19에 대응하는 필수 수단인 디지털 기술의 층간 격차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앞으로 지구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 한선재단의 진로

- ◆ 재단의 시대적 소명은 한선재단이 지향하는 가치인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확산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동체를 생

각하는 덕목, 공동체 가치를 진작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

- ◆ 재단의 핵심 과업은 우리 헌법 전문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퓰리즘, 다수의 횡포에 입각한 대중독재, 전체주의, 경찰국가를 경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요즘 국민들의 편 가르기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통합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공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선진사회와 공동체자유주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소 중장기 과제가 될 수 있겠으나 북한 체제를 정상화하고 북한 동포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 한반도를 통일을 위한 연구사업도 재단의 핵심 과업이다.
- ◆ 과업을 이루는 전략 기조로서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Think-Tank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Think-Tank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사구시의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널리 전파하며 공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정책을 개발·실천하고 나라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 재단 운영 과제도 적지 않다. 회원과 참여자를 다양화해 노장층과 남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On-tact, Home X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한선재단도 디지털과 모바일 역량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의 대면 토론 빈도를 줄이고 On-tact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시대 추세와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재단의 취약한 재정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유료 회원을 배가하고 회비 외에 다른 수익사업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과제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